

최형식 후보 4선 군수 성공할까

■담양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나이)	최형식(62)	강승환(59)	김현석(47)	신동호(61)	전정철(60)
주요경력	담양군수	부패방지국민운동 전남대표	사회정책연구원장	전남대 수의과대 교수	전 전남도의원
주요공약	·대형사업 차질없는 추진 ·농축산 융·복합 산업화 ·인문학 결합 교육도시 육성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 ·학교 급식비 연차적 지원	·군민과 소통 없는 행정 ·생태도시개발공사 설립 ·아파트형 전통차산단 조성 ·여성·치매 전문병원 건립 ·행정실명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확대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역 지원 ·65세이상 보건소 무상 치료 ·농부병 치료 여건 마련	·교육 중심도시 조성 ·농림축산업 기술혁명 ·세계적 관광·쇼핑거리 개발 ·의사결정에 사회적약자 참여 ·퇴근시간 보장·의무휴가제 실시	·농업 소득 증대 ·담양읍 명품시가지로 개발 ·군정사 신속 ·농축협 태양광발전소 확대 ·도민제전 유지

6·13 지방선거 표밭 점검

■담양군수

담양군수 도전자는 5명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식 후보와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 무소속 김현석·신동호·전정철 후보다.

이들은 행복택시 확대, 군내버스 단일 요금제, 학교 급식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무상 치료, 공직자 퇴근시간 보장 등 담양 발전과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이번 담양군수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현직 군수인 민주당 최형식 후보의 4번째 군수 입성 여부다. 고공행진 중인 집권여당 후보인데다, 자신의 경력과 풍부한 정치경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담양군 역사상 가장 많은 대규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첨단문화복합단지·대덕 새꿈도시·담양읍 독일마을 조성 등 대형투자 사업, 에코하이테크 담양산단·다나무바이오파인·메타프로방스 등 성장 동력 사업, 한재골 수목원 조성·담빛예술창고·담양5일장 다미담 예술구 조성 등 관광문화 사업 등을 통해 부자담양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농가 1가구당 6000만원 시대를 실현하고, 첨단문화복합단지내 대안형 국제학교 설립·인문학학사센터 및 학습

바른미래 강승환·무소속 김현석·신동호·전정철 출사표

행복택시 확대·65세 이상 보건소 무상치료 등 공약 내놔

프로그램 연구기관 설치 등 생태적 환경과 인문학 가치를 결합한 교육도시 육성도 제시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의 효력정지를 이끌어낸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는 “담양군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메타프로방스-관광제립-축농원을 연계한 관광단지조 지정·개발해 합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양의 모든 인·허가는 불법이 아닌 한 100%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 후보가 추진한 메타프로방스의 불법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선거전략으로 해석된다.

무소속 김현석 후보는 ‘40대 젊은 군수’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경영안정대책비 발 재배까지 확대, 경지정리지역 배수로 정비, 각종 보조금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70세까지 확대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겨울철 경로당 급식도우미 비용 전액 지원, 노인복지타운 여가기능 대폭 확대, 전립선 검사비 전액 지원, 보건소에 목욕·물리치료시설 마련 등도 공약했다.

무소속 신동호 후보는 두번째 군수 도전이다. 전남대 수의대학장을 지낸 신 후보는 행정·교육·농업·축산·수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강점이다. 그는 담양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구와 경제를 꼽았다. 교육중심도시 조성과 농림축산업의 기술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 인구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명품유치원·명품학교 육성, 평생학습·평생교육 실현, 농업기술센터 기능 대폭 확대, 식물 기능성 연구소 및 농림축산 관련 대학 연구소 유지, 불거리·먹거리 등 문화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재선 군의원과 전남도위원을 역임한 전정철 후보는 국민의당을 탈당, 무소속 상태다. 전 후보는 “고여 있고 답답된 정적”은 미래담양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없다며 “군민과 함께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 소득 증대를 군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을 확대해 농업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담양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박종원(49·민·전 담양군의원)
제2선거구	김기성(62·민·전 담양군의회 의장)
	김진호(60·무·담양군상인협의회 감사)
	민=더불어민주당, 무=무소속

성 후보는 풍부한 경륜이 강점이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담양군 상인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진호 후보는 4년 전에 무소속으로 전남도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2명 선출 ... 민주당만 후보 확정

■전남도의원(담양)

담양에서는 전남도위원을 2명 뽑는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만 후보를 확정했다.

제1선거구(담양읍·무정면·금성면·용면·월산면)엔 민주당 박종원 후보가 나섰다. 박 후보는 재선의 박철홍 도의원을 꺾는 과업을 일으켰다. 그는 “그동안 군의원으로서 담양발전에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넓은 곳에서 노력해보고자 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합리적인 사

고와 균형잡힌 판단력으로 담양군민의 행복과 내일을 위해 전라남도과 담양군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과 담양 경유,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국제학교 유치, 정원문화가 살아있는 인문학 도시 조성 등을 공약했다.

제2선거구(봉산면·고서면·남면·황평면·대덕면·수북면·대전면)에서는 민주당 김기성 후보와 무소속 김진호 후보가 격돌한다. 3선 군의원과 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기

민주 광주·전남 컷오프·경선 반발 ‘탈당 도미노’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 잇단 무소속 출마

본선 대결구도·향후 선거판도 영향줄 듯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탈당이 본격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맞서 야권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등이 추진되면서 본선 대결구도와 향후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높은 정당 지지율에 도취한 민주당이 지역 정서를 외면하고 오락가락한 컷오프와 고 무속 잦아들며 적을 하나씩 늘려준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내 경선과정에서 부당한 컷오프와 불공정을 이유로 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돼 경선도 치르지 못한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9일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이었지만 당 기여도 등 모호한 기준 때문에 1차 컷오프를 당했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와 같은 정치신인에게

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판단돼 부득이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동구청장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양해령 예비후보도 전남 민주당 본선 대결구도에 맞서 ‘불공정 경선’을 탈당 사유로 내세웠다. 그는 “2010년 시의원 경선 불복과 관련해 4년 전에는 해명이 받아들여져 25% 여성 가점을 받았는데 이번엔 20% 감점됐다”며 “시장 후보 탈당전력 10% 감점 기준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유주연 전 전라남도 컷오프된 임우진 시구청장도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10일 선거사무실 개소를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의 후보 검증 과정은 지역 민심은 물론 민주당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 학살 적폐”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이들 외에도 3~4명의 단체장·광역의원 후보들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거나 탈당 후 급을 낮춘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임흥빈 신안군수 후보가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군수 출마를 선언했고,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도 경선 불공정 등을 문제 삼아 민주당 옷을 벗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광양2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경식 후보와 광양시의원 가 선거구 출마자 이기연 후보가 권리당원 100% 선거에 따른 갑질이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탈당을 결심하는 등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장 야권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에 맞서 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무소속 손훈호·양효석·윤병철 예비후보와 민주당 이창용 예비후보 등 4명은 이날 저녁 회담해 후보 단일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과거 민주당 ‘일당 독점’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 중 참신하고 전문직을 가진 정치 신인들 보다는 지역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기록권을 누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5·18민주묘지 묘비두기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지사 봉사원들이 9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묘비두기 봉사를 하고 있다. /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추진위 출범

시민사회·산학연 전문가 120명, 공동대표 5명 구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의 설립과 광주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9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실에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촉식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120여 명과 공동 대표 5명으로 구

성됐다. 공동 대표로는 윤장현 광주시장, 김삼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추진위 실행위원장, 최수태 광주·전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등이다. 정지근 대표 1명은 미정이다.

위원회는 광주가 지속가능한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한국문

화기술연구원의 설립 추진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뤄진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이룰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각계각층 산학연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지난 2017년 6월 광주시는 문제 안 정부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경기획사위원회에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문화수도의 대표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

나주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시의회

더 더하는 학교 더 나누는 학생



- ♣ 비단고을 놀이문화 활성화
- ♣ 학생 자치 역량 강화
- ♣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 ♣ 비단고을 역사·문화 자랑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Jeollanamdo Naju Office of Education
대표전화 061-330-0154
전남 나주시 완사천길15

나주시산림조합



나주시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합니다.

“함께하는 숲 더불어 사는 삶”
여러분의 꿈과 미래 나주시산림조합이 함께 이루어 드립니다.

산림경영 기술지도 - 산림경영지도, 특화품목전문지도, 대리경영지도
산림사업 지원 - 산림경영계획 작성, 임목수확 지도, 묘지관리대행
유통사업 지원 - 목재 가공 유통, 목재 펠릿 공급, 버섯종균 공급

나주시산림조합과 **금융거래(예금, 대출)**를 하면 나무와 숲이, 그리고 고객의 삶이 풍요로워 집니다.

- ▶ 산림조합 정기예탁금 특관 실시중
- 1년만기 2.4%, 5천만원 이상 1년만기 2.5%
- ▶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토지구입자금 대출
- 동신보 발급이 가능한 분 (매매대금 100%이내)
- 임업경영이 가능한 임야, 전 담 등 토지

나주시산림조합 Tel. 061)334-2154
전남 나주시 완사천길18 Fax. 061)332-2154

동신대학교
DONGSHIN UNIVERSITY

착함은 인재로 세상을 바꿉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보다 먼저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인생을 배웁니다.

바른 인성으로 바라보는 넓은 세상
실사의 주인공을 꿈꾸며
동행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꾸세요!
Dream & Smile 동신대학교

ACE+ PRIME LINC+ CK-I
ACE+ PRIME LINC+ CK-I
ACE+ PRIME LINC+ CK-I
ACE+ PRIME LINC+ CK-I